

민주연구원 정책브리핑

‘지역경제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발간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송창욱 부원장)은 12월 16일(화), 『지역경제 혁신기반 구축을 위한 ‘메가 샌드박스’』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 송창욱 부원장(원장 직무대행)은 “5극3특 초광역시대,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지역경제 혁신기반이 필요하다”며, “국가균형성장을 뒷받침할 지역경제 혁신기반 구축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책브리핑은 현재 900개가 넘는 각 지역의 특구가 복잡한 절차와 지역 나눠먹기 등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정리·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찰하고, 향후 성장주체로 자립을 목표로 발전해 나아갈 각 지역의 입장에서 반드시 지역별 경제혁신 기반이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메가 샌드박스’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 이번 정책브리핑은 국민주권정부의 5극3특 지역특화 신산업육성 정책과 광역별 혁신기반 구축 정책에 중점을 두어, 향후 (초)광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 첫째, 메가 샌드박스는 新기술·新산업이 (초)광역 지역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官이 아닌 民에서 먼저 제안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 둘째, 향후 대한민국 (초)광역 지역의 경쟁대상이 국내를 넘어 국외라고 할 때, 초대형 스케일 적용이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게 기술·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식이 도모되어야 하며, 이러한 방식 중 하나가 메가 샌드박스이라고 제시했다.
 - 셋째, 메가 샌드박스 모델을 각 지역별로 구체화하여 (초)광역별 산업·경제부문의 고유한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단순한 기업·투자 유치를 넘어 세계 어느 지역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의 환경을 지역별로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연구원 박동욱 연구위원은 “이번 정책브리핑이 국가균형성장의 기반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광역 지역별 혁신성장을 촉진을 위해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서 발간하였다”라며, “다만 기존에 없었던 과감한 규제 완화와 파격 제도를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관련 부처를 통합하여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 특별행정위원회 수준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